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랑가라는 위치가 밴쿠버 다운타운과도 가깝고, 매트타운 등 다른 곳에 놀러가기도 딱 적당한 곳이어서 좋았다. 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규모도 넓고 잔디밭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보거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우리 학교 학생들도 같이 온 다른 학교 친구들도 모두 캐나다에 영어를 배우러 온 목적이라 현지 캐나다 사람인 친구를 사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방학인 학생들 몇몇을 초청해서 같이 친해져보는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p>
수업	<p>생각보다 수업 시간이 매일 6시간씩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 만족했다. 내용도 캐나다의 역사나 어휘를 다뤘는데, 특히 학생들이 직접 준비해서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의미가 깊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팝송 가사를 읽거나 좀 더 유익하고 흥미 있는 위주의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
필드트립	<p>거의 캐나다 밴쿠버에서 중요하고 가볼만하다 하는 곳은 한번씩 학교에서 다같이 가서 좋았다. 그래서 따로 준비하거나 찾아놓지 않더라도 웬만해서 학교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면 카야킹, 휘슬러 트립 등을 다 체험할 수 있다. 여행을 하면서 빠져리게 느낀건 선글라스랑 모자는 필수라는 것이다. 날씨가 아주 좋지만 햇빛이 꽤 강하므로 눈이 부시지 않으려면 이 두가지는 꼭 한국에서 챙겨 왔으면 싶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앞에서 언급했듯 햇빛이 강하므로 선글라스와 모자 하나는 꼭 챙겨야 한다. 날씨는 8월임에도 불구하고 18~22도 안팎의 굉장히 선선한 가을 날씨다. 따라서 반팔만 챙길 게 아니라 긴팔이랑 추울 때 걸칠 후드집업도 챙기자.</p>
안전	<p>휴대폰이나 여권, 현금 지갑을 항상 잊지 않고 잘 챙겨다녀야 한다. 외국이라 막상 실제로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렵다. 휴대폰은 꼭 잊지 말자. 돈 들고갈때 현금이랑 카드 나눠서 가져오면 쓰기 편하다. 카페나 음식점에 갈 경우 짐은 한명씩 서로서로 맡아줘야 안전하다.</p>
숙소	<p>홈스테이는 기대 이상이었다. 처음엔 음식이 잘 안 맞았는데, 그건 각자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말해서 조정하면 된다. 각 집마다 샤워나 청소 세탁기 쓰는 규칙이 있는데 그것만 잘 지키고 오면 좋은 경험으로 남는다. 애기도 많이 나누고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p>
식사	<p>학교에 기본적으로 팀 홀튼이라는 카페, 음식 겸용 식당과 카페테리아 하나, 서브웨이가 있다. 점심은 주로 홈스테이에서 싸주는데 샌드위치가 질릴 경우 학교에서 사먹을 수 있다. 가격대는 주로 5천원 이하라 괜찮다. 다운타운 가스타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나 펍이 많다.</p>
교통	<p>교통비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1달짜리 패스카드가 주어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밴쿠버 학교 근처에 zone 1에 다닐때는 그냥 패스카드를 찍으면 되고, 그 외 특별히 다른 지역으로 따로 가고 싶다면 카드 찍고 내린 후에 그때그때 추가 비용을 계산하면 된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식비	40만원	학교에서, 놀러나가서 먹은 것
쇼핑비	70만원	아울렛, 쇼핑센터
여가생활비	30만원	입장료, 대여비
기타	20만원	교통비, 학용품 등
합계	16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캐나다가 한국보다 시원한 날씨이기 때문에 여름부터 가을옷까지 다 챙겨가는 게 좋다. 인구 구성 비율이 다양해서 인종차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모자랑 선글라스는 필수로 꼭 미리 챙겨놓자. 저녁에 쌀쌀할 때 입을 얇은 후드집업도 하나 챙겨가자.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해외로 나간 경험이 몇번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근데 걱정을 괜히 하기라도 한 듯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학교에서 교통비나 수업료 같은 부분은 지원이 들어가고 학교 내에서 여행하는 활동을 꽤 하는데 거기서도 비용적으로 이미 지원이 되어있는 상태라 좋았다. 일단 캐나다를 간다는 것 자체가 메리트였고, 가서도 우리 학교 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많은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고 소통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다 참여하고 어학이나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발표할 때 우리 조가 준비한 보드 판



마지막 우리반 단체 사진



캐나다에서 한국 오기 직전 여권



휘슬러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끼리 마지막 사진



엘리자베스 공원